

2021년 9월 2일
TAU-USA - 104호
국가 봉사자 글



우리는 누구인가

삼년전 타우십자가 형제회에 형제적 방문했을 때 큰 감명을 받았던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일 영속적 양성 주제는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이었고, 회원들에게 회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모두에게 빈 엽서를 나누어주고 세 단어로 회칙을 묘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엽서를 걷고 그 중 몇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좋은 답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복음. 삶, 회개 (Gospel, Life, Penance)

다른 흥미로운 시각은:

영적, 질서, 간결 (Spiritual, Orderly, Concise)

하지만 그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Who we are)

우리 회칙을 완전하게 표현한 이 세 단어는 제 얼굴에 웃음을 띄게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엽서를 제 회칙에 간직하면서 회칙이 '나는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우리의 생활양식의 시작에 영감이 준 '생활지침 (Memoriale Propositi)'의 놀라운 800주년을 정규삼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침의 800주년이라 들었을때, 기억을 더듬어야 했음을 고백합니다. ⁱ 회칙에 언급된 것은 기억했지만, 어떤 문서인지,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오늘날 우리 삶의 방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국제형제회 웹을 찾은 결과 여기에 답을 주는 비디오와 글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지침 800주년을 ⁱⁱ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준 이 글과 비디오를 여러분도 자료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처음 읽은 국제형제회 글에서 생활지침의 역사적 배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형제회의 창시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해야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프란치스칸 회개자의 회개 시작된 배경은 흥미롭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회개 운동은 계속되었는데, 항상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니다. 성 프란치스코 이전의 회개 운동은 교회 내의 여러 어려운 상황에 대해 개혁과 혁신의 형태였습니다. 불행히도 대부분 개혁자들은 교회에 반대하는 성향이 강했고 그 결과 이단적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접근 방법은 이들과 다르고 고유했는데 평신도들이 그의 이러한 모범에 이끌리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표현된 권고에 근거를 둔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남녀, 기혼, 독신자가 서로 도우면서 회개의 삶을 사는 형제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회개자 모임의 회원들은 세상에 받을 끊지 않고 프란치스코처럼 세상을 받아들였고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고 복음의 기쁨을 전하며 하느님과 서로의 밀접한 관계를 기뻐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1221년 “삶의 과제를 위한 문서”을 의미하는 이름의 생활지침 (Memoriale Propositi)을 공포합니다. 모든 회개자들을 위한 문서이자 현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의 기초가 된 문서로 초기 회개 형제 자매들의 영적 삶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빛나는 계획 (A Most Luminous Proposal)

긴 회개 혁신 과정에 결론을 가져온 아씨시 성프란치스코의 놀라운 인간적 종교적 모범입니다. “그를 통하여 평신도들의 극히 인간적이며 그리스도적 열망을 풀어주는 놀라운 계획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 프로스페로 리비 신부 72 쪽)
국제형제회 생활지침의 첫 공헌

생활지침을 읽으면 현 회칙과의 유사점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생활지침은 매일 어떻게 살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성체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레회와 자비의 실천을 설명하고 양성 과정과 어떻게 형제회원이 되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의회 구성, 회원의 교정, 책임 나눔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 회칙과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ⁱⁱⁱ.

생활지침은 초기의 회개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들과 우리들이 동기부여받아야 할 것들을 연결해줍니다. 우리 회칙은 우리를 800년을 통해 지속된 생활양식이란 아름다운 여정을 계속 걷게 합니다. 참으로 하느님의 사업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가슴에 담겨 있는 우리 회칙은 우리의 삶입니다. 카드에 적힌대로 “우리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의 장래는 어떨까요? 재속 프란치스칸의 앞날은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생활지침 800주년 기념 방법

- (1) 회칙 정독, 필사, 실천, 머리말을 읽으면서 사부님 말씀 듣기, 사부님께서 분심을 피하는 것에 관해 주의기율이셨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성소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면서 변명하는데 있어 조심하기

- (2) 영속적 양성. 국가형제회ⁱ 웹에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에 관한 준비된 여섯 학습 계획을 지구 양성봉사자와 상의하여 사용하기. 2021년 8월에 있었던 국가 양성 모임은 회칙이 주제였고 지구 양성봉사자에게 자료가 제공되었음
- (3) 국제형제회의 계속되는 기념활동 참가. 2022년 돛자리 피정(Quinquennial Congress)에서 그랜드 피날레 행사에 참석

ⁱ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 3 장. “이 회칙은 “생활지침”(Memoriale Propositi, 1221년)과 니콜라오 4세(1289년)와 레오 13세(1883년) 교황 성하께서 인준하신 회칙에 이어 재속프란치스코회를 변천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성 교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ⁱⁱ 이 자료들은 국제형제회 웹(www.ciofs.info)에서 “Memoriale” 검색하시면 됩니다.

ⁱⁱⁱ 생활지침의 원문과 분석을 국제형제회(www.ciofs.info)에서 “Reflections on Memoriale”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iv} www.secularfranciscansusa.org. 국가형제회 웹에서 “OFS Rule Formation Materials” (Resources -> Formation -> Ongoing Formation) 사용하거나 지구 양성봉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